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⑨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지혜 스님은… 설악산 중흥조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1975년 신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8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불교복지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철학과를 졸업했다. 제방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으며 동해 삼화사와 인천 능인사, 양양 명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2020년부터 신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선서화(禪書畵)에도 조예가 깊어 화집 〈당신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그림은 소리 없는 시요, 시는 소리를 가진 그림〉〈대나무 그림자로 달빛을 쓸며〉〈말한 바 없이 말하고 들은 바 없이 듣다〉를 출간했다.

사진=이동격 강원지사장

“절은 시장 속에 있다” 조계선풍 잇는 신흥사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설악산 깊은 품에 자리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한국불교 선풍(禪風)의 뿌리를 간직한 도량이다. 조계종 종조 도의 선사가 처음 선풍을 일으킨 ‘조계선풍 시원도량’이라는 자부심 위에, 오늘의 신흥사는 수행과 전법, 복지와 문화, 승가공동체 정신을 함께 일구며 영동 불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 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지혜 스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설악산 가풍”이라고 강조했다. 수행과 포교, 인재불사와 복지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가 5월 6일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 지혜 스님에게 교구 운영 방향과 수행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들었다.

Q 교구장 소임을 맡은 지 6년째입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온 방향은 무엇입니까?

안으로는 사부대중의 화합, 밖으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이라는 원력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흥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성준 대선사와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 정신과 공덕을 선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스님께서는 늘 “신흥사는 산중에만 있는 절이 아니라 마을과 시장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모두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이 신흥사의 정신입니다.

Q 신흥사는 ‘조계선풍 시원도량’입니다. 오늘날 신흥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설악산은 조계종 종조 도의 선사께서 처음 선풍을 일으킨 곳입니다. 하지만 전란과 분단을 겪으면서 선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무산 대종사께서 백담사 무금선원과 기본선원, 신흥사 향성선원 등을 열어 선풍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또 설악산 입구에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 현판을 세워 전통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행 전통을 지키고 선풍을 이어가는 것이 교구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성준 대선사와 무산 대종사의 정신은 오늘날 신흥사 운영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두 어른 스님께서는 한결같이 하심(下心)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에게 아상(我相)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중이다’라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마음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설악산 가풍입니다. 사람은 모두 부처입니다. 수행도, 인재불사도, 복지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성준무산장학재단이 30년 가까이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100억원 가까운 원력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Q 성준무산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성준 대선사와 무산 대종사께서는 지역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늘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을 아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출가학교 개설과 무문관 운영 등 수행과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조계선풍 시원도량으로서 수행 전통을 확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포교와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수행 없는 포교는 힘을 잃기 쉽고, 포교 없는 수행은 세상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AI시대가 심화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가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를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상(相)도 달라집니다. 결국 수행은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성준 · 무산 대종사 원력 · 가르침 계승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 위해 최선
‘압도적’ 장학 · 문화포교, 묵묵한 지원
64개 말사 긴밀 소통 · 승려복지 시행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설악 가풍”

Q 설악무산문화축전, 만해축전, 무산문화대상 등 다양한 문화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만해대상이 30회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무산 대종사님은 생전 만해축전을 전국 최고의 축제 반열에 올려놓으셨고, 열반 이후에는 대종사님을 따르는 분들이 설악무산문화축전, 무산문화대상 등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문화포교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환수라는 큰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신흥사는 한국전쟁 직후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2007년 미국 LA카운티미술관에서 ‘영산회상도’가 발견된 후, 많은 분의 노력으로 2020년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6점이 돌아왔고, 지난해 ‘시왕도’ 1점이 추가로 환수됐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성보의 행방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환지본처한 성보를 잘 봉안해 다시는 황망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말사 운영과 승가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와 말사는 일심동체여야 합니다. 신흥사는 양양부터 철원까지 64개 말사가 있고,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말사 스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승려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흥사는 오래전부터 재적 스님들에게 수행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수술비나 긴급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흥사복지재단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도 활발합니다.

신흥사는 1996년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불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속초지역 장애인 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 운영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Q 신흥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흥사는 설악산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부터 설악산을 지켜왔습니다. 설악산이 불교의 성산이 된 것은 신흥사 사부대중의 노력에 더해 신흥사를 찾는 많은 분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Q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하심이 잘 안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의(義)’를 가져야 하고, 어진 마음인 ‘인(仁)’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법도가 사라지고 맙니다. 불교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종교입니다. 무아와 연기의 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광반조(回光返照)해야 합니다. 수행과 전법, 복지와 문화 모두 결국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밝히기 위한 길입니다. 신흥사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신흥사가 설립한 성준무산장학재단은 해마다 지역 학생들에게 3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무산 대종사를 기리는 ‘설악무산문화축전’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로 펼쳐진다.



2024년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의 첫해 수상자로 문태준 시인, 박찬욱 영화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선정됐다.



신흥사는 한국전쟁 직후 도난당해 미국을 떠돌던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등 7점을 환수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을 하고 있다.